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제목 : 이 시대를 향한 한국교회의 사명 성경: 요한복음
17장11-22절

11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3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14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5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6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8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19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20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

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
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11-22)

한국교회는 지난 100여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다.

시대에 걸맞는 선교전략으로 당 시대에 꼭 필요한 영적, 정신적, 문화적, 물
질적 유산들을 한국사회에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교인들도 신앙적, 선교적 가치관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강력하고 열성적으로
전도하여 한국교회의 성장을 일구어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의 신앙행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등
장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과거 단순히 영적인 무지나, 종교적 핍박의 수준
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거부감이 지속적으로 그 불륜을 높여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자녀들에게까지 신앙적 유산이 되물려지지 않는 현
상이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하였다.

한국교회는 점차적으로 한국사회 내에서 지적으로,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낙후되는 길을
선택하였다.

의사결정의 도구로서 당회가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전권을 휘두르게 구조화
되면서 어른들의 결정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게 되었고, 합리적 가치, 도덕적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등 상식적 가치보다는 은혜나 선교적 가치가 우선시되었고, 더구나 개교회주
의의 결정 구조는 유교적 가문중심 구조를 답습하여 전체교회의 협력과는 다
소 거리가 멀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과거 사회적 선구자로서의 위치는 사라지고 말았다.

현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입장은 어떠한가? (그것이 진실은 아

닐지라도 부정적인 시각들은 현실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 믿음 제일주의에 대한 불신

-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모든 상황을 믿음의 논리로 본다.

- 병에 걸리면 믿음이 부족해서, 사업이 잘되면 믿음이 좋아서, 믿기만 하면 구원.(기복신앙) 믿기만 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믿음에 발목이 잡힘. 믿음의 머리가 믿음의 꼬리를 무는 격)

- 믿음의 행위로서 기도와 주일성수와 십일조와 교회봉사만 강조됨.

- 믿음이 좋은 것에 대한 증거를 신앙생활에 대한 철저함으로 증명하려고 했지, 정의롭거나 윤리적이며 경건한 인격의 철저함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 오류를 범함. (현재로서는 교인들의 도덕성이 많이 떨어짐, 구원파적 신앙이 해와 세대주의 종말론적 세상 이해의 영향임.)

2.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의 부족(일부 과격한 기독교인들의 영향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게 됨, 특히 좁은 한국에서 더욱 그러함.)

- 정서적 배려, 인간적 배려, 문화적 배려, 종교적 배려가 부족하였다.

- 특히 타종교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기까지 하였다. (자기의 쪽박을 깨뜨리는 것은 타당하나, 남의 쪽박까지 깨지는 말았어야 한다.)

- 물론 비기독교인들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배려는 더욱 악하다. 심지어 신성 모독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다는 점을 잊지 말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 (눅23:34)

3. 교회문화 율법주의

- 교리나 경건 뿐만 아니라, 교회문화까지 율법화가 이루어져서 교회문화적이지 않으면 타부시하는 경향

- 특히 술담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 타종교인들의 종교행위에 대해서 (제사나 굿)
- 선교적 측면에서도 이들에게 친절할 필요가 있다.

4. 건강한 비판을 수용하는 기제부재

- 우월한 가치관에 대한 자부심이 자만함으로 이용됨.
-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나 하나님을 비판하기 보다는 교회문화를 비판한다.

5. 선교제일주의

- 전투적인 선교적 태도 (스텔스선교)
- 스스로는 목숨을 건다고 자부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십자군 전쟁과 다를것이 무엇인가?
- 선교를 위한 자기희생이 아니라, 선교를 위한 너의 희생을 당연히 하는 것은 어불성설.

-물론 현재 교회의 잘못 보다는 더 심한 핍박이 있는 것이 사실. 그러나 교회는 항상 박해를 받아왔고 그 박해를 이겨왔다.

-지금의 교회는 박해를 이기지 못할정도로 건강이 쇠약해 졌다는점이 문제.

-특히 박해의 원인이 교회 자신에게 있다면 그것은 우선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19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벧전2:19)

20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벧전2:20)

6.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대응 부족

-이단과 사이비, 또는 몰상식한 신앙행태는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퇴치운동을 벌여야 했었다.

-그러나 개교회주의에 물든 교회는 이들에 대해 속수무책이었다.

-이런 결과로 한국사회는 교인들이 독선적이고, 무례하다고 여긴다.

원인분석

북한은 세계 최대 기독교박해국가이다.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들은 한국교회가 가장 걸림돌인 것을 잘 알고, 한국교회를 향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비판을 일삼고 있어서 이들의 힘을 입은 수많은 반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카톨릭은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 등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소수와 약자들의 편에 선다는 입장을 취함으로 은근히 개신교만 비판의 중심에 서게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방안

그러나 우리는 이런 비판앞에 건강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1. 우리는 철저히 부끄러운 모습을 청산해야 한다.
2. 우리는 더 건강하고 강인해져서 박해에 강인하고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한다.
3. 우리는 비판을 비판으로 대항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방법론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비판 앞에 속수무책인가?

그것은 한국교회가 하나로 뭉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로 뭉치기를 원하신다.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사라져서 교회에도 어른이 없다. 한국교회는 어른의

의미를 잘 깨닫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께 사사를 구해야 한다.)

지금은 회개할 때이지만, 그보다 세배는 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할 때이다.

지금은 진리를 분별할 때이지만, 그보다 세배는 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할 때이다. (진리의 분별은 이단이나 사이비들이나 배교자들을 향하여 할 것이다. 또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헛된 믿음 제일주의에 대해서 분별해야 할 것이다.)

작은 교회들은 큰 교회를 비판하지 말자. 큰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을 돌보자. 쓰러져가는 교회를 일으켜 세우자.

-분쟁중에 있는 교회는 다툼을 그치고 함께 회개해야 할 것이다.(사랑의 교회)

-건강한 교단끼리는 서로의 교리를 존중하고 교리의 당위성을 인정해야 한다.

-캐톨릭교회는 배도한 교회이지만, 그들을 뽑아내 버리려고 하지 말고, 뱀처럼 지혜롭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화통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 전에 한국교회의 일치를 이루어내야 하는 숙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온 민족이 세계선교의 과업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진국이 되고, 교인들은 보람을 찾으며, 부흥의 열기를 맛보게 될 것이다.

11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된다.

12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오직 배도자 유다만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배도하는 카톨릭교회에서 타다 남은 백성들을 구원해 내야 한다.

15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

17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는 오직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20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 질 때 비로소 사람들에게 전도가 된다.

21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가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다.

22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11-22)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제목: 바다에서 나온 십각칠두의 짐승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2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3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4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5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6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7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8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9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1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12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 처가 나온 자니라

13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 (계13:1-18)

해석

1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세상. 세상 나라들, 방언들, 족속들

-짐승;사탄의 대리자

-뿔;왕 -뿔에는 열 왕관이 있음;뿔이 왕을 뜻한다는 해석임. 열왕은 10명의 왕이기 보다는 여러왕을 뜻함.

-머리;왕조

-신성 모독;열왕들이 짐승, 즉 사탄의 사주를 받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될 것을 예언함.

2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

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 짐승의 모습;표범, 곰, 사자,(다니엘7장에 묘사된 4나라의 모습이 등장.)
- 나머지 3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성경에 보면 고대 바벨론, 애굽, 앗수르 (4나라;바벨론, 메대 파사, 헬라, 로마)
- 7나라에 사탄이 권세를 줌.

3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4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5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6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7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8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9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